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코참의 '미 대선 분석과 통상 전망' 세미나로 경제 정보가 없습니다)

[금융]
- CNBC: 미 10년물 국채 금리 2023년 이후 최고치... 재무장관의 60억 달러 바이백 불구
- Bloomberg: 엔화 강세에 일본 기업 '실적 여유분' 소진… 실적 악화 우려

[물류]
- WSJ: 한국 등 해운 강국들 "글로벌 무역, 구조적 변혁 직면" 경고

[중동 전쟁]
- Bloomberg: 미국도 이란 유조선 추가 타격

[오일]
- Bloomberg: 유가, 7월 이후 처음 100달러 돌파… 지속적인 미·이란 갈등 여파로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 '감세·MAHA' 앞세워 중간선거 승부수

[트럼프 관세]
- Bloomberg: 트럼프, 캐나다산 유제품·주류 수입 금지 명령… 무역 갈등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 금리 1년 만에 최고…6.85%
- YahooFinance: 미 주택 보험료 증가세 미 전역으로 확산

[미국 경제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8월 미 경제 상황과 평가

[공급망 일일 브리핑]
- KMI 글로벌 해운 공급망 브리핑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금융]

CNBC: 10-year Treasury yield jumps to highest since 2023 despite Bessent's $6 billion bond buyback plan
미 10년물 국채 금리 2023년 이후 최고치... 재무장관의 60억 달러 바이백 불구

- 미 재무부가 평소의 3배 수준인 6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바이백)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 10년물 국채 금리는 3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오른 4.839%로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0년물 금리는 3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5.292%, 2년물 금리는 1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오른 4.415%에 거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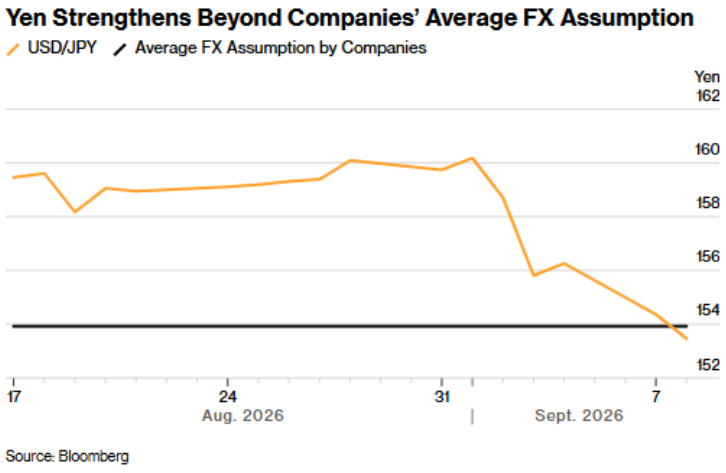
- 파격적인 바이백 발표에도 금리가 급등한 것은 미·이란 충돌로 유가가 100 달러를 넘어서며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 대규모 재정 적자에 따른 국채 공급 과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이례적인 바이백 개입이 오히려 시장 유동성 불안을 자극하며 채권 매도세를 부추겼다..

SYMBOL	COMPANY	YIELD	CHANGE
US10Y	U.S. 10 Year Treasury	4.847%	+0.043
US1M	U.S. 1 Month Treasury	3.721%	-0.003
US1Y	U.S. 1 Year Treasury	4.159%	+0.013
US2Y	U.S. 2 Year Treasury	4.427%	+0.029
US30Y	U.S. 30 Year Treasury	5.302%	+0.038
US3M	U.S. 3 Month Treasury	3.895%	UNCH
US6M	U.S. 6 Month Treasury	4.028%	UNCH

기사

Bloomberg: Yen Rally Erodes Japan Corporate Buffers, Raises Earnings Risks
엔화 강세에 일본 기업 '실적 여유분' 소진… 실적 악화 우려

- 엔화 가치가 당초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어 급등하면서, 환율 상승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내수 중심 종목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 엔화 강세 여파로 자동차 등 주요 수출주가 하락세를 보인 반면, 건설, 전력·가스 등 내수 관련 업종은 시장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냈다.
-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성장 둔화가 일본 증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기업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보이는 시각도 있다.



기사

[물류]

WSJ: Shipping Nations Warn of Structural Shift in Global Trade
한국 등 해운 강국들 "글로벌 무역, 구조적 변혁 직면" 경고

- 한국, 독일, 일본 등 18개 주요 해운국 모임인 '선박협의그룹(CSG)'이 지정학적 분쟁과 무역 규제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흑해(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등 주요 해상 거점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 세계 무역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무역 시스템과, 제재를 회피하고 선박을 공격하며 해상 항로를 위협하는 불법 시스템으로 세계 무역이 양분되고 있다며, 항해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중동 전쟁]

Bloomberg: US Hits Several Iran Oil Tankers in Response to Warship Attack
미국도 이란 유조선 추가 타격

- 미군이 미 군함을 공격한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 5척을 추가 포격했다. 이로써 미군이 파괴한 이란 유조선은 최소 8척으로 늘어났다.
- 전문가들은 이번 타격이 이란의 원유 수송 능력을 당장 꺾기는 힘들 것으로 보지만, 군사적 충돌 격화로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사실상 마비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으며, 에너지와 주요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기사

[오일]

Bloomberg: Brent Oil Tops $100 as US-Iran War Shows Little Sign of Abating
유가, 7월 이후 처음 100달러 돌파… 지속적인 미·이란 갈등 여파로

-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브렌트유가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 그동안 추적을 피해 운항하는 레이더 미포착 유조선들을 통해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해 공급되며 유가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해 왔었다.
- 그러나 미·이란 충돌 격화에 더해 중국의 원유 매수세까지 다시 살아나면서 글로벌 원유 수급 불균형이 악화,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기사

[트럼프 행정부]

Bloomberg: Trump’s Midterm Strategy Centers on Tax Cuts, MAHA and Himself

트럼프, '감세·MAHA' 앞세워 중간선거 승부수

-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지지율 정체를 이겨내기 위해 자신을 전면에 내세운 중간선거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 이번 선거 전략은 중도층 설득 대신 핵심 지지층과 투표에 소극적인 유권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치 슬로건인 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캠페인 세력을 총동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화당은 이를 통해 하원에서 약간의 우위와 상원 과반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 트럼프 측은 주요 성과인 대규모 감세 법안과 국경 통제 강화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물가와 이란과의 전쟁 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사

[트럼프 관세]

Bloomberg: Trump Signs Orders to Ban Some Canadian Products From U.S. Market
트럼프, 캐나다산 유제품·주류 수입 금지 명령… 무역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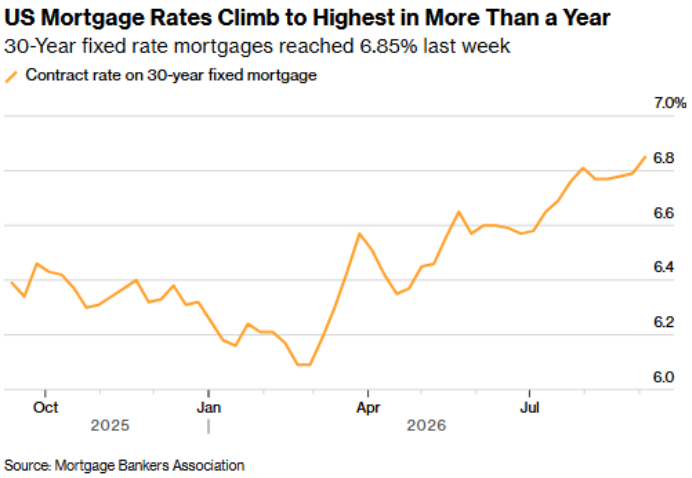
- 트럼프 미 대통령이 3주 후부터 캐나다산 주요 유제품과 알코올 음료, 오토바이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약 2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물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발효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50% 관세 대상도 일부 조정했다. 시멘트와 도로용 소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보트와 사륜 오토바이(ATV) 등 새로운 품목에는 50%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군의 파산도 우려되고 있다.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s Rise to 6.85%, Highest in More Than a Year
미 모기지 금리 1년 만에 최고…6.85%

- 미국 모기지) 금리가 이란 전쟁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모기지은행협회(MBA) 발표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전주보다 6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6.85%를 기록했다. 반면 5년 변동 모기지 금리는 6.13%로 떨어졌다.
- 2월 말 이란 전쟁 전 2022년 이후 최저치였던 금리는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금까지 약 0.75% 올랐다.



기사

YahooFinance: Home insurance rates are up 47% nationwide. See the states where rates rose the most.
미 주택 보험료 증가세 미 전역으로 확산

-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 국한되던 주택 보험료 급등세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며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관련 조사 LendingTree '2026년 주택보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 미국의 주택보험료는 약 47% 폭등했다.
- 특히 타격이 큰 지역의 2025년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했다. 콜로라도가 18.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조사 대상이 된 어떤 주에서도 보험료가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기사

[미 경제 보고서]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8월 미 경제 상황과 평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글로벌 해운 브리핑]

KMI 글로벌 해운 공급망 브리핑

- 미국이 카르그 섬 인근 이란 유조선을 타격 하고 후티가 사우디 4개 도시를 공격해 73명이 사망하는 등 중동 분쟁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브렌트유가 97달러를 돌파하고 100달러에 근접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120달러 돌파 가능성을 경고했다.
-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바레인 인근 유조선 공격을 예고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무인 잠수 드론을 나포하는 등 해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통과 선박 교통량이 감소하고 있다.
- 한편 카타르 LNG 운반선이 7월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이 확인되었고, 한국 HMM은 브라질 발레와 4.7조 원 규모 장기운송계약

을 체결하는 등 국내 해운업계는 위기 속에서도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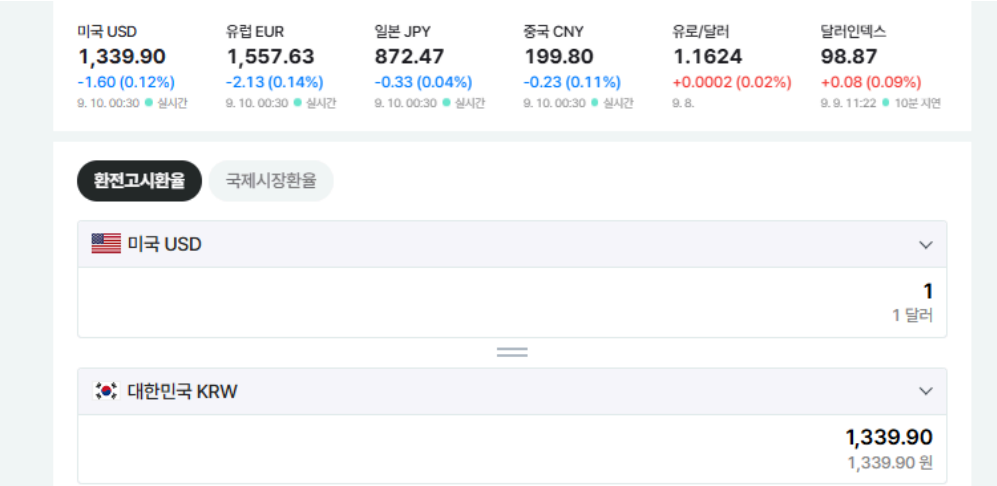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2,381.70	-405.8	-0.77%
US 500	7,632.40	-41.3	-0.54%
Dow Jones	52,377.53	-408.54	-0.77%
S&P 500	7,631.19	-42.46	-0.55%
Nasdaq	26,215.29	-206.12	-0.78%
S&P 500 VIX	16.58	+0.86	+5.47%
Dollar Index	98.83	+0.048	+0.05%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30/32	5.298	0.050
10-Year Note	4.625	-4/32	4.846	0.052
7-Year Note	4.5	-3/32	4.725	0.052
5-Year Note	4.375	-24/32	4.615	0.045
3-Year Note	4.375	-17/32	4.521	0.037
2-Year Note	4.125	-1/32	4.430	0.026
1-Year Bill	0	0/32	4.152	0.010
6-Month Bill	0	0/32	4.028	0.008
3-Month Bill	0	1/32	3.895	0.023
1-Month Bill	0	0/32	3.721	-0.005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